

【자료소개】

『滿洲歷史地理』上, 第2編 : 漢代の 滿洲

「만주에서의 前漢의 영토」(稻葉岩吉) 譯註 1*

이준성** · 위가야*** · 박준형****

[해설]

『滿洲歷史地理(上)』의 대표저자인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는 야나이 와타리(箭內互, 1875~1927), 마쓰이 히토시(松井等, 1877~1937),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876~1940) 등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책의 집필 부분, 즉 연구 주제를 정해 주었다.¹⁾ 「제2편 漢代の 滿洲」의 저술을 맡은 사람이 이나바 이와키치이다. 야나이, 마쓰이 등 시라토리의 다른 제자들이 동경제국대학에서 수학한 엘리트였던 반면에 이나바는 군인 출신이었다. 그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군에 자원하여 1904년 10월 陸軍通譯으로 鴨綠江軍 제1사단 사령부에 근무하였다. 이후 나이토(內藤湖南)의 권유로 南滿洲鐵道株式會社에서 1908년 설립한 滿洲歷史地理調查部에서 1914년까지 근무하며 연구활동을 하였다.²⁾ 이후 1922년 조선총독부 조

* 稻葉岩吉, 「만주에서의 前漢의 영토」(白鳥庫吉 監修, 箭內互·稻葉岩吉·松井等 撰, 1913, 『滿洲歷史地理』上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학예연구사

1)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338~339쪽.

2) 박장배, 2009, 「만철 조사부의 확장과 조사 내용의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43.

선사편찬위원회 간사로 부임하였고 이후 조선사편수회의 간사로서 修史작업을 주재하였다. 滿洲國 건국 이후에 그는 滿洲建國大學 교수로 부임하면서 ‘滿鮮史’를 체계화하였다.³⁾ 따라서 최근 식민주의 역사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⁴⁾

이나바가 저술한 「제2편 漢代的 滿洲」는 「제1편 漢代的 朝鮮」에 이어서 한대 만주의 역사지리를 다루고 있다. 제1편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사군의 위치비정에 집중한 반면에, 제2편은 한대의 만주지역에 설치되었던 遼東·遼西·右北平郡의 위치비정을 다루고 있다. 본문에서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한대 동북 3군의 범위가 만주의 지리적 범위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의 3군을 제외하고 만주의 역사지리를 논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북 3군을 통해서 만주의 역사지리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제2편 중 ‘제1절 만주에서의 전한의 영토’만을 다룬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내용은 만주에서 전한의 영토 범위를 군현의 위치비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한서』 지리지의 右北平郡 16현, 遼西郡 14현, 遼東郡 18현의 위치를 각각 비정한다. 여기에서 이용된 가장 중요한 사료는 역시 『한서』 지리지와 『수경주』이다. 이나바가 이용한 대부분의 사료는 그가 새롭게 찾아낸 것이 아니라 당시 만주의 역사지리에 관심이 있는 역사가라면 누구나 참고했을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나바를 비롯한 이 책의 위치비정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법론상 정지하지 못하거나 사료를 풍부하게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주역사지리(상)』를 주목하는 것은 근대적인 역사학 방법론에 의해 처음으로 만주의 역사지리를 통시대적으로 체계화했고 이후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라토리가 이 책의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이 연구는 순수한 학문적 영역과 일본의 滿韓경영의 실제적 필요

3) 사쿠라자와 아이, 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滿鮮不可分論」,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정상우,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채구성」, 『역사교육』116, 1~6쪽.

4) 이정민, 2012, 「식민주의 사학의 한국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83.

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實證’이라는 이름하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더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만철 초대 총재인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文裝的 武備’라고 했던 의미를 충분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⁵⁾

[번역]

만주에서의 前漢의 영토는, 동부는 鴨綠江의 유역과 그 변천과정을 생각하고, 서부는 지금의 長城을 따라 이어지는 直隸省의 일부를 攷究해야 한다. 하지만 전자는 漢代 朝鮮의 항목에서 논술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글에서 포함하는 범위는 서쪽으로는 北京의 동방 灤河 유역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요서와 조양부의 境域을 아우르고, 동쪽으로는 遼河 유역에 이른다. 滿洲라고 하는 것의 意義를 바르게 해석하면 어느 곳은 곧바로 그 명칭에 부합되는 곳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지역의 고찰을 제외하고 한나라의 동북면 강역을 말하려 하는 것은 정녕 불가한 것이다. 이 글에서 遼東·遼西·右北平의 3군을 함께 서술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글을 시작함에 있어서 자연히 秦代의 전성기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漢書』(권94) 匈奴傳에 따르면

始皇帝가 蒙恬에게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으로 胡를 치게 하여 河南의⁶⁾ 땅을 다 거두었다. 河를 이용해 塞를 만들고, 44현에 성을 쌓아 河에 臨하게 하였으며, 遙을 이주시켜 방어에 충당케 했다. 그리고 直道를 통하게 하여 九原에서 雲陽에 이르렀는데 邊山의 험준함에 의거하고 산골짜기에 해자를 파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기를 臨洮에서 시작하여 遼東 萬餘里에 이르렀다.

5)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4, 『滿鐵-일본제국의 싱크탱크』, 47~50쪽;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앞의 책, 349쪽.

6) [역자주] 여기서의 ‘河’는 黃河를 가리킨다.

라고 한다. 『括地志』에서 이를 해석하여 “臨洮는 곧 지금의 岷州이다. 진나라 장성이 처음에 민주 서쪽 12리에서 시작되어 동서 萬餘里에 뻗어 동쪽은 요수로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므로 秦代의 장성은 지금의 甘肅省 서부에서 黃河 북안을 따라 이어져 承德府 대부분을 포함하고 朝陽府 북쪽으로 뻗어서 요동에 이르게 된다. 시황제가 이렇게 웅장한 지세를 손에 쥐게 된 것은 아마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실로 戰國시대 여러 나라들의 경영에 따른 바가 많은 것이었다. 같은 책 흉노전은 이를 증명하는데

秦이 隴西, 北地, 上郡을 차지하고 長城을 쌓아 胡를 막았다. 趙 武靈王이 또한 풍속을 바꾸어 胡服을 입고 騎射를 익혀 북쪽으로 林胡와 樓煩을 격파했다. 代와 陰山 아래에서 高關에 이르기까지 塞를 만들고 雲中, 鴈門, 代郡을 설치했다. 그 이후 燕에 현명한 장수 秦開가 있었는데 胡에 인질이 되니 胡가 그를 깊게 믿었다. (진개가: 역자 추가) 돌아와서 東胡를 습격하여 깨뜨리니 東胡가 千餘里를 물러났다. …… 燕이 또한 長城을 쌓았는데 造陽에서 襄平에 이르렀고 上谷, 漁陽, 右北平, 遼西, 遼東郡을 설치하여 (東)胡를 막았다. 당시 冠帶할 수 있는 나라가 戰國에 일곱이었는데 세 나라가 匈奴와 이웃하였다. 그 이후 趙將 李牧이 있는 동안에는 흉노가 감히 趙에 들어오지 못했다.

라고 했다. 燕, 趙, 秦 3나라가 모두 흉노 방비의 필요에 쫓겨 각자 그 서방에 장성을 처음으로 설치한 것을 알 수 있다.⁷⁾ 그렇지만 이 장성은 많은 경우 새로 개척된 군현의 변방 경계를 防護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흉노전에 따르면 우리가 이 글의 주제로 삼은 3군은 모두 燕나라가 개척한 것이다. 연나라는 薊 즉 지금의 北京을 도읍으로 했다. 생각건대 그 전성기는 昭王代(기원전 325~279)일 것이며 국운의 발전은 이윽고 압록강 동서쪽에 미쳐 강대한 압력을 반도에도 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진나라가 일단 연나라를 병합했을 때에 멀리있는 앞서의 3군 지역에 영향을 끼쳤

7) 『日知錄』(권31) 장성 항목 참조.

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앞선 시대의 규모를 승계한데 그쳤다고 생각하려 한다. 그리하여 한나라의 그것 또한 거의 秦나라의 規制를 이어받은 것을 대체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전국시대의 연·조·진 및 통일된 진·한이 동북 변강을 경영한 것은 上古시기 支那 종족의 영예로운 역사이다. 이 현저한 발전에 대비될 수 있는 것은 후세 明朝 초기에서 잠깐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다른 방면에서 그 경영의 자취를 전·후 양한의 對比에서 찾을 때, 盛衰消長이 또한 너무 심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⁸⁾ 우선은 변경 바깥에 있는 종족이 점차 변창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잠식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전한 말기에 걸친 漢室의 정변에 있을 것이다. 光武朝의 중흥은 애석하지만 전한시대의 옛 규제를 회복할 기회가 되지 못했다.

이 글에서 연구하는 제1의 사료로 『漢書』 地理志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리지는 班固가 편찬한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전한과 크게 멀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조정의 秘策圖書를 마음대로 볼 수 있었으므로 그가 지은 것 역시 당시의 희망에 부합된다. 다만 우리는 그가 어떤 재료를 채택하여 이렇듯 방대한 기록을 남겼는지는 미리 성찰할 필요가 있다. 『隋書』(권33) 經籍志에서는 이 의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漢初에 蕭何가 秦의 圖書를 얻은 고로 天下의 要害를 알 수 있었다. 이 후에 또 山海經을 얻었는데 대대로 전하고 夏禹가 기록한 것이라 여겼다. 武帝 때에 책을 집계하여 太史에게 올렸는데 郡國地志가 또한 여기에 있었다. 司馬遷이 기록한 것은 다만 河渠를 말할 뿐이었다. 그 후에 劉向이 地域을 대략 말했고 丞相 張禹가 수하인 朱貢을 시켜 風俗을 항목별로 기록하게 하였으니 班固가 이에 의거하여 地理志를 지었다. 그 州國郡縣의 山川의 夷險과 時俗의 다름, 經星의 분별, 風氣가 생겨나는 바, 區域의 넓음, 戶口의 수를 각각 차례대로 말한 것이 옛적에 禹貢 周官이 기록한 것과 서로 같았다.

8) [역자주 : 白鳥庫吉 外, 1913, 『滿洲歷史地理』上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72~173쪽, 175~176쪽 참조.

이 글에 따르면 반고는 실로 劉向과 朱貢이 편술했다는 기록을 기초로 하여 지리지를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유항과 주공 두 사람의 기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張禹와 유항이 모두 哀帝(기원전 7~1) 초년에 죽은 것이 분명한 이상, 많은 재료가 해당시기를 중심으로 채택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沈欽韓은 『한서』(권30) 藝文志 중 形法六家로 적힌 國朝七卷을 가리켜 어찌면 주공이 기록했을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⁹⁾

1. 遼東郡

전한의 요동군은 진대의 행정구획을 이어받은 것으로 그 강역도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 것 같다. 군의 치소인 襄平은 전국시대 연나라가 처음 설치한 것이다. 살펴보면제 시황제 22년(기원전 225) 연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군의 치소는 이전 그대로 두어 이동하지 않았다. 전한 및 후한과 西晉도 마찬가지로 이 현을 치소로 하였다. 지나 동북의 세 邊郡 - 우북평 · 요서 · 요동-중에 유독 이 군의 치소만이 이처럼 오랜 기간(기원전 225~기원후 316)에 걸쳐서 옮겨지지 않은 것은 특히 주의할만하다.

전한의 요동군은 幽州의 행정구획에 예속된다. 그 서쪽 경계는 요서의 大凌河 좌안에 이르고, 동쪽은 開原 부근에서 撫順 동쪽으로 나와 내려가 鳳凰城 동변에 이르며, 남쪽은 압록강¹⁰⁾을 사이에 두고 樂浪郡에 인접하고,

9) 『漢書補註』(권30) 藝文志 항목에서 “沈欽韓이 말하기를 隋志에 劉向이 지역을 대략 말했고 丞相 張禹가 수하인 朱貢을 시켜 風俗을 항목별로 기록하게 하였고 班固가 이에 의거하여 地理志를 지었으니 國朝라는 것이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견해가 맞는지 아닌지는 이를 단언할 수 없다. 지리지의 결론을 검토할 때, ‘采獲舊聞 考述詩書 推表山川 以綴禹貢周官春秋 下及戰國秦漢焉’이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각각의 증명은 군국주현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同志 代郡조에 「秦地圖」를 인용한 하나의 節이 있다. 이 지도는 앞 시대의 유물일 것이다. 桑欽의 말로 인용한 기사 역시 때때로 여기저기에 조금씩 보인다. 다만 桑欽 본인에게 水經의 저술이 있었다고 『唐書』 藝文志에서 말한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다.

서남쪽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靑州(지금의 山東)와 맞서 있다.

1) 襄平縣(지금의 遼陽州)

양평은 전국시대 연나라가 처음 개척한 것을 진나라의 시황제가 22년(서기전 225)에 빼앗아 요동군의 치소로 정하였다.¹¹⁾ 전후 양한 모두 이 군의 치소로 삼았다.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襄平은 牧師官이 있다. 莽이 昌平이라 불렀다.”라고 했다. 양평의 위치를 추정할 만한 자료는 매우 드물다. 단 『晉書』(권1) 宣帝本紀 景初 2년조에 황제¹²⁾가 公孫淵을 요동에서 토벌하던 때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그 대강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경초2년[238] 牛金과 胡遵 등을 거느리고 步騎 4만으로 京都를 출발했다. 그리하여 孤竹(지금의 永平府)을 지나 碣石(山海關 서남쪽)을 넘어 遼水에 도착했다. 文懿¹³⁾가 역시 步騎 수만을 보내 遼隧에서 막고 성벽을 굳게 하여 지켰는데, 그 길이가 남북으로 6~70리로써 帝에게 항거하였다. 帝가 군사를 모으고 旗幟를 많이 배치해서 그 남쪽으로 나오니, 賊은 정예를 다 보내 이쪽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帝가 곧 배를 띄워 몰래 건너가 그 북쪽으로 나와 적의 진영에 닥쳐서, 배를 가라앉히고 다리를 불살랐으며 요수를 따라 길게 포위망을 만들고는 賊을 내버려두고 襄平으로 향하였다. 여러 장수들이 적을 공격하지 않고 긴 포위망을 만드는 것은 적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帝가 말했다. “적이 營壘를 굳게 하는 것은 우리 군사를 피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공격하려면 실로 계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賊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으므로 소굴은 비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곧바로 양평을 향하면 사람들이 모두 내심 두려움을 품을 것이다. 두려워서 싸우려 한다면 반드시 이를 깨뜨릴 수 있다.” 드디어 진영을 정비하고 지나갔다. 적은 군사가 그 뒤로 나오는 것을 보고 과연 이를 邀擊하였다. 帝가 여러 장수들에게 말했다. “營을 공격하지 말라고 한 까닭이 바로 이를 불리

10) [역자주 : 白鳥庫吉 外, 1913, 『滿洲歷史地理』上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제1편 ‘한대의 조선’을 볼 것.

11) 『수경주』(권14) 대요수 항목 참조

12) [역자주] 晉 高祖 司馬懿를 말한다.

13) [역자주] 요동태수 공손연을 말한다.

오도록 한 것이었으므로 (기회를 : 역자 추가) 놓치지 말라.” 곧 군사를 풀어 놓아 逆擊하여 크게 깨뜨리고 세 번 싸워 모두 이겼다. 적이 양평을 지키니 진군하여 이를 포위했다. 때마침 遼에 장마가 들어 數尺의 평지에 홍수가 났다. 三軍이 두려워 營을 옮기려 하였다. 帝가 軍中에 명령하여 감히 옮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斬하게 하였다. 都督 俞史 張靜이 명령을 어겨 그를 斬하니 軍中이 곧 안정되었다. 이윽고 비가 그치니 드디어 사면을 포위하였다. 土山地道를 시작으로 楯櫓鉤橦, 矢石을 비가 내리듯 날려 밤낮으로 이를 공격하였다. 그 때 芒蠶이 있는 흰 長星이 양평성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흘러 梁水에 떨어지자 文懿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文懿가 남쪽의 포위를 공격하여 뚫고 나가려하였다. 帝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쳐서 패배시켰다. 양수 근처 벌이 떨어진 장소에서 斬하였다.

이 기사 중에서 우리가 배워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공손연의 本城인 양평이 요하의 좌안 및 遼隧 북쪽에 있었다는 것과 아울러 梁水가 양평의 동북쪽을 흘러 지나간다는 것이다. 양수란 지금의 太子河를 가리킨다.

『三國志』(권8) 魏志에는 이 싸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전한다.

淵(公孫文懿)가 장군 卑衍, 楊祚 등을 시켜 步騎 수만으로 遼隧에 주둔하게 하였는데 참호의 둘레가 20여 리였다. 宣王의 군대가 이르자 衍으로 하여금 逆戰케 하였다. 宣王이 장군 胡遵 등을 시켜 공격하여 이를 깨뜨리게 하였다. 宣王이 군에 명령하여 포위를 뚫고 군사를 이끌어 동남쪽을 향하다가, 급히 동북쪽으로 돌려 양평으로 나아갔다. 衍 등이 양평의 수비가 없음을 두려워하여 밤에 달아났다. 諸軍이 나아가 首山에 이르니, 淵이 다시 衍 등을 시켜 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였다. 다시 쳐서 깨뜨리고는 드디어 진군하여 城 아래로 나아가 참호를 파서 포위하였다. 때마침 장맛비가 30여 일 내리니 尤수가 급격하게 불어 수송선이 遼口에서 곧장 성 아래에 이르렀다. 8월 병인일 밤 길이 수십장의 큰 유성이 수산의 동북쪽에서 양평성 동남쪽으로 떨어졌다. 일요일에 淵의 무리가 무너져 그 아들 修와 수백기를 거느리고 포위를 뚫어 동남쪽으로 달아났다. 大兵이 급하게 (그들을 : 역자 추가)쳤다. 유성이 떨어진 곳에서 淵의 父子를 斬했다.

이 글에 보이는 首山은 지금의 요양 서남쪽 약 15淸里¹⁴⁾에 있는 수산과 동일한 곳일 것이다.¹⁵⁾ 이상의 두 기사를 점검하면 『진서』는 長星이 흘러 내려간 방향을 양평성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흘러 양수에 떨어졌다고 하고, 위지는 수산의 동북쪽에서 양평성 동남쪽에 떨어졌다고 쓰여 있다.

생각하건데 이 기사는 완전히 동일한 사건을 전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長星은 양평성 서남쪽에 위치한 수산 부근부터 동북쪽으로 흐르고, 그 성의 동북쪽을 지나가서 양수 가에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해석이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면 양평현은 수산의 동북쪽, 태자하 좌안의 지역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추정에 기초하여 양평은 지금의 요양 부근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¹⁶⁾ 『大清一統志』(권39)에서 요양주의 북쪽에 있다고 한 것은 따르지 않는다.

2) 新昌縣(지금의 요양주 서북)

이 현은 양평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방에 있었을 것이다. 『後漢書』(권 85)¹⁷⁾ 句驪傳에는 句驪王 宮이 建光 원년(서기 121), 鮮卑 군사와 함께 요동을 침범한 기사를 수록하였다.

여름에 다시 遼東鮮卑 8천여인과 함께 遼隊를 공격하여 吏人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蔡諷 등이 추격하여 新昌에서 싸우다 죽었는데 功曹 耿耗, 兵曹 椽 龍端, 兵馬椽 公孫酺가 몸을 던져 諷을 막다가 모두 陳에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백여인이었다.

이 글에 따라 살펴보면 구려왕 궁이 鮮卑를 꺾어 와서 遼隊(海城 서쪽)를

14) [역자주] 淸里 : 淸里는 淸나라에서 사용되었던 里를 말한다.

15) 『大清一統志』(권38) 山川 항목 참조.

16) 『遼東志』(권1) 古蹟 항목 참조.

17) [역자주] 원문에는 권115로 되어 있으나, 『後漢書』 東夷列傳은 권85가 맞다.

공격했다고 하므로, (음이 : 역자 추가)요동의 서쪽에서 남하하여 지금의 해성 부근을 침범하자 蔡颯이 보고를 받고 양평에서 요대로 달려갔으나 선비 등은 이미 그 땅을 떠나 퇴군하였다. 채풍이 이를 추격하여 新昌에 이르러 패해 죽었다고 하였으므로 신창은 양평의 서북쪽에서 찾는 것이 지당함을 알 수 있다.¹⁸⁾ 『대청일통지』(권39)는 新昌縣은 鎭의 臨溟縣 新昌鎭을 가리켜 어찌면 한나라의 옛 현과 같은 지역일 것이라고 했다. 따를 만하다.

3) 無慮縣(지금의 廣寧縣)

지금의 광녕현 치소¹⁹⁾이다.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無慮는 西部都尉의 치소”라고 했다. 한나라 제도에서 요동군에는 동·중·서의 3部都尉를 두었다. 이 현은 양평 서쪽에 있으므로 서부도위가 駐在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다. 顏師古는 무려는 즉 醫巫閭라고 했다.

『후한서』 志(권23)²⁰⁾ 郡國志 遼東屬國 항목에는 “無慮에 醫無慮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의무려산은 지금의 광녕 서북쪽 10청리에 線亘하는 산맥을 가리킨다. 무려라는 이름은 이 산의 이름을 따라 생겼을 것이다.²¹⁾

18) 신창이 요양 부근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 기사에 의해 추측된다. 『진서』載記(권9)에 慕容皝이 咸和 9년(서기 334) 11월에 요동을 친 것을 기록하여 “皝이 몸소 遼東을 정벌하여 襄平에서 이겼다. 仁이 임명한 居就舍 劉程가 항복하고 新昌 사람 張衡이 縣의 宰를 잡아서 항복하였다”고 하였다. 살펴보면 이 때 모용황은 오직 양평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며, 아직 남하하여 慕容仁의 근거지인 요동반도를 끼치지 않고, 거취 및 신창이 양평 克復에 따라 항복한 것을 생각하면, 이들 여러 지역이 양평(지금의 요양주)에 근접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9) 『대청일통지』(권43) 建置沿革 항목.

20) [역자주] 원문에는 권33으로 되어 있으나, 遼東屬國 항목은 『後漢書』 志 권23, 君國5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의 『후한서』 군국지 인용은 모두 이를 따라 수정하였다.

21) 무려는 의무려의 첫 음절[頭音]이 생략된 것으로 생각된다. 의무려란 東胡의 언어일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 홑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한자로 적혀 있다.

醫無閭 『周禮』 권33, 職方氏.

醫無慮 『後漢書』 志, 권23, 君國志.

醫巫閭 『漢書』 권8, 顏師古 注.

醫母閭 『淮南子』, 권14, 墜形訓.

無慮 『漢書』 권28, 地理志.

4) 望平縣(지금의 鐵嶺縣)

『한서』 지리지(권28) 요동군 조에

望平. 大遼水가 塞外에서 나와 남쪽으로 安市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 데 1250리를 간다. 莽이 長說이라 불렀다.

라고 했다. 이 글은 망평현이 대요수 상류에 있는 것과 그 현의 위치가 遼河 연안과 크게 멀지 않음을 보여준다. 『水經注』(권14) 大遼水篇은 더욱 상세하게 말해서

遼水가 또한 砥石山에서 나왔다고 말한다. 塞外로부터 동쪽으로 흘러 곧 바로 遼東의 望平縣 서쪽으로 가니 王莽의 長說이다. 꺾어져서 서남쪽으로 흘러가면 襄平縣 故城 서쪽을 지나는데, 秦始皇 22년에 燕을 멸망시키고 遼東郡을 두어 이곳을 치소로 했다. 漢 高帝 8년에 紀通을 책봉하여 侯國으로 삼았으니 王莽의 昌平이며, 옛 平州의 치소이다. 또 남쪽으로 遼隊縣 故城 서쪽을 지난다.

라고 했다. 이 글에 의거해서 살펴보면 망평현은 요하의 屈曲點에서 곧장 그 東岸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굴곡점²²⁾은 지금의 철령과 개원 사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형을 관찰하면 철령은 아마도 망평현의 옛 지역이라 추측할 수 있다.

대요수의 水源에 관해서 지리지는 상세히 전하지 않고 단지 塞外에서 나온다고만 기재했다. 생각건대 한나라의 세력이 아직 그 水源이 있는 지방에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같이 대략 기재했을 것이다. 대요수란 小遼水에 대비해서 부른 것이다. 소요수는 지금의 渾河를 말하며 대요수란 요하를 가리킨다.

www.kci.go.kr

22) 『水道提綱』(권2) 大遼水 항목 참조.

5) 房縣(지금의 광녕 동남쪽)

이 현은 광녕현 동남쪽에 있다. 『대청일통지』(권42)에서

『水經』을 살펴보면 대요수는 양평현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방현 서쪽을 지난다고 되어 있다.²³⁾ 지금 생각해보면 후한이 요동속국을 나누어 두어 6성을 따로 다스렸을 때 그 昌黎, 賓徒, 徒河 3현은 모두 원래 遼西에 속했다. 무려는 요동에 속했지만 역시 요수의 서쪽에 있다. 방현만 유독 요수 동쪽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요수 동쪽에 있다면, 요동군 치소와 거리가 매우 가깝고 또 安市, 平郭과 경계를 맞대고 있으니, 어찌 이것만 요동속국에 析隸하겠는가. 생각건대 房과 險瀆 모두 요수의 서쪽, 河海에 접해있는 지역이니, 『수경』의 西字는 곧 東字의 잘못이며, 『通志』가 방현을 해성의 고적에 집어넣은 것은 아마도 잘못이다.

라고 했다. 이는 따를 만하다.

6) 侯城縣(지금의 奉天)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侯城은 中部都尉의 치소”라고 했다. 후성이란 장성의 일부에 특별히 설치된 보루와 장벽²⁴⁾을 말한다. 생각건대 이 현의 어느 곳에 이전에 후성이 설치된 적이 있었으므로, 이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삼국지』(권30) 위지 高句麗傳에서

廢帝와 安帝 연간에 句麗王 宮이 자주 요동을 침입하니 다시 玄菟에 속하게 하였다. 요동태수 蔡風과 현도태수 姚光은 궁이 두 군의害가 된다고

23) 『수경주』(권14)에 “大遼水는 塞外에서 나와 白平山으로 가며, 동남쪽으로 塞에 들어가 요동 양평현 서쪽을 지난다. … 또 동남쪽으로 방현 서쪽을 지나 … 또 동쪽으로 安市縣 서남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다. 酈道元은 白浪水의 하류가 방현에 이르러 遼로 흘러든다고 해석했다. 『前漢地理圖』는 이를 따랐지만 우리는 채택하지 않는다.

24) 『한서』(권6) 武帝紀, 太初 3년조에 “匈奴가 定襄과 雲中에 들어와 수천인을 죽이고 약탈하고는 光祿이 설치한 여러 亭障을 허물고 갔다”고 한 것을 안사고는 “漢의 제도로 모든 塞의 바깥에는 별도로 성을 쌓고 사람을 두어 鎮守하는데 侯城이라고 하니, 이는 곧 鄆이다”라고 주석했다.

여겼으므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였다. 궁이 거짓으로 항복하여 講和하기를 청하니 두 군이 진격하지 않았다. 궁이 몰래 군대를 보내서 현도를 공격해 侯城을 焚掠하고 遼隧를 침입했다.

라고 했다. 이 글에 따라 살펴본다면 후성은 현도군 치소에서 요대에 이르는 사이에서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前漢地理圖』는 후성을 지금의 해성 동쪽에 표시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요대(해성 서쪽)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겠지만, 『후한서』 군국지에 따르면 이 현은 高顯 및 요양과 함께 현도군에 改屬된 것이 명백한 이상 양평현(요양)을 넘어 홀로 이 지방에 있을 리 없을 것이다. 중부도위의 치소라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의 봉천이 이 현의 소재지라고 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7) 遼隧縣(지금의 해성 서쪽)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遼隧는 莽이 順陸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진서』本紀(권1) 景初 2년(서기 238)조에 선제²⁵⁾가 공손연을 양평에서 토벌한 기사를 수록하여

景初 2년 牛金과 胡遵 등을 거느리고 步騎로 京都를 출발했다. …… 孤竹을 지나고 礪石을 넘어 요수에 도착했다. 文懿²⁶⁾가 역시 步騎 수만을 보내 遼隧에서 막고 성벽을 굳게 하여 지켰는데, 그 길이가 남북 6~7리로써 帝에게 항거하였다. 帝가 군사를 모으고 旗幟를 많이 배치해서 그 남쪽으로 나오니, 賊은 정예를 다 보내 이쪽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에 배를 띄워 몰래 건너가 그 북쪽으로 나와 적의 진영에 닥쳐서, 배를 가라앉히고 다리를 불사르고 요수를 따라 길게 포위망을 만들고는 賊을 내버려두고 襄平으로 향하였다.

라고 했다. 이 글에 보이는 遼隧²⁷⁾는 즉 遼隧와 같다. 公孫氏는 요서로부터

25) [역자주] 晉 高祖 司馬懿를 말한다.

26) [역자주] 요동태수 공손연을 말한다.

와서 요수의 좌안에 도착한 司馬懿의 군대를 遼隊에서 저지했던 것이므로 이 지역이 당시 요하의 도하점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도하점이 요하의 상류인가 아니면 하류에 있었던가. 『삼국지』(권3) 明帝本紀 경초 원년 조에 다음의 기사를 수록하여

가을 7월, 이전에 權(吳王 孫權)이 사자를 보내 바다를 건너게 하여 高句驪와 통하여 요동을 습격하려고 하였다. 幽州刺史 毋丘儉²⁸⁾을 보내 여러 군대 및 鮮卑, 烏丸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 南界에 주둔하게 했다. 璽書를 보내 公孫淵을 징발하였는데 淵이 군대를 일으켜 반란하니 儉이 진군하여 그를 토벌했다. 때마침 비가 10일을 연이어 오니 요수가 크게 불었다. 儉에게 조서를 내려 군대를 이끌고 돌아오게 했다.

라고 했다. 이 글에서 관구검과 공손연 군사의 접촉점이 요동의 南界에 있음은 분명하지만 남계가 어느 지방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삼국지』 위지(권8) 공손연전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전한다.

경초 원년 이에 幽州刺史 毋丘儉 등을 보내 璽書를 가지고 가서 淵을 징발하였는데 淵이 드디어 군대를 내어 遼隧에서 막아 儉과 싸웠다. 儉 등이 불리하여 돌아왔다.

27) 遼隊는 『삼국지』(권8)에는 遼隧라고 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모두 遼隧로 써야 한다.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조 요대의 주석에서 안사고는 “隊의 흡은 隧”라고 했다. 隧는 燧의 약자로서 烽燧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고는 『한서』 흉노전 侯應의 문답을 적은 곳에 “塞徼를 세우고 亭隧를 만들었다”고 한 것을 주석해서 “隧는 길게 관 작은 길로 가서 적의 鈔寇를 피하는 것이며, 隧의 흡은 隧”라 하여, 隧를 長塞에 이어져 만들어진 작은 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주장이 정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고의 주장대로 隧字를 보아 그 뜻을 풀어낸 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바의 亭隧는 사실은 亭燧의 잘못이다. 근처 敦煌에서 발굴된 『沙州志』에는 마찬가지로 侯應問對의 한 구절이 인용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塞徼를 세우고 亭燧를 만들었다”고 쓰여 있고 亭隧라고는 쓰여 있지 않다. 이 亭燧란 한나라가 塞 위에 설치한 봉수대를 말한다. 뜻에 조리있음이 분명하니 의심할 것이 없을 것이다. 흉노전에서 말하는 바의 亭隧는 亭燧의 誤寫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국지』에 遼隊를 遼隧로 쓴 것에서 추측할 때 隧 역시 燧字를 잘못 베긴 것이 분명하다. 사고가 흡을 주석하여 “隊의 흡은 隧”라고 한 것 역시 우리의 견해가 잘못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28) [역자주] 원문에는 ‘毋丘儉’이라 되어 있으나 ‘毋丘儉’이라 교정하고 관구검으로 읽음.

앞에서 요동의 남계에 주둔했다고 한 것은 遼隧의 맞은편 언덕 부근에 주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요대가 요하 하류에 있고 동서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함은 명백한 사실로서 그 지점을 요하 좌안에서 찾을 수 있음은 논쟁할 것도 없다. 『수경주』(권14) 대요수편의 기사는 이제 까지 상정한 것을 더욱 명백하게 한다.

요수 ... 동쪽으로 흘러 곧바로 요동의 망평현(지금의 철령)으로 간다. ... 꺾여서 서남쪽으로 흘러가면 양평현 故城 서쪽(지금의 요양)을 지난다. ... 또 남쪽으로 요대현 故城 서쪽을 지난다. ... 공손연이 장군 畢衍을 보내 사마의를 요대에서 막았으니 곧 이곳이다.

이 글은 요대현이 지금의 요양 남쪽으로 강에 접한 지역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경주』는 거듭 기록하여

소요수(혼하)는 또한 서남쪽으로 양평현을 지나 淡淵이 된다. 晉 永嘉 3년에 말랐다. 소요수는 또한 요대현을 지나 대요수로 들어간다.

라고 했다. 이 글에 따르면 요대현이 혼하와 요하의 흐름이 합쳐지는 부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이 두 水의 흐름이 합쳐지는 곳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결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금의 三岔河 부근을 가리켜 이 현의 소재지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대략 牛庄의 서북쪽에 있다는 추정은 수긍할 만하다. 『대청일통지』(권39)에서 해성현 서쪽에 있다고 한 것은 따를만 하다.

8) 遼陽縣(지금의 봉천 서남쪽)

이 현은 봉천 서쪽 彰義站 부근에 있을 것이다.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遼陽. 大梁水가 서남쪽으로 흘러 요양에 이르러 遼로 들어간다. 莽이 遼陰이라고 불렀다.

라고 했다. 대량수란 이름은 여기서 처음으로 보인다. 이 글에 따르면 이 河는 요양 동북에서 발원해서 그 현의 경내에서 요수와 흐름이 합쳐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 遼는 대요수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소요수를 가리키는가. 『水經』(권14)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다.

현도군 고구려현에 遼山이 있다. 소요수가 나오는 곳이다.

『수경주』는 이 기사에 대해

水(소요수)는 遼山에서 나온다. 서남쪽으로 흘러 요양현을 지나 대량수와 합쳐진다. 水(대량수)는 北塞의 外에서 나온다. 서남쪽으로 흘러 요양에 이르러 소요수에 들어간다. 지리지에서 대량수가 서남쪽으로 흘러 요양에 이르러 遼로 들어간다고 했다.

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르면 遼라는 것은 명백하게 소요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소요수는 지금의 혼하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대량수는 그 지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삼국시대 사마의가 공손씨를 양평에서 포위할 때의 기사를 살펴보면 량수는 양평(요양) 동북쪽을 지나간다. 요양성 동북쪽을 지나 혼하와 흐름이 합쳐지는 큰 강을 찾으면 지금의 태자하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상의 해석이 지나치지 않다면 요양의 현내에 혼하 및 태자하의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현의 치소는 혼하 北岸에 위치할 것이다. 살펴보건데 지나 고대의 명칭에 河의 北岸을 陽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보이는 요양도 요수(혼하)의 北岸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청일통지』(권39) 및 『전한지리도』에서 이 현을 지금의 요양주로 추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는다.²⁹⁾

9) 險瀆縣(지금의 광녕 동남쪽)

광녕의 동남쪽으로 지금의 溝帮子 부근 지역에 있을 것이다. 『사기』(권 115) 조선전 주석에서 徐廣의 설을 인용하여 昌黎에 險瀆縣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창려라고 한 것은 이 현이 요동속국의 치소가 되는 것보다는 그 지방에 근접했음을 말한 것이리라. 晉 咸和 8년(서기 338) 요동의 平郭(蓋平)에 있는 慕容仁이 慕容昭의 내응을 얻어 군사를 요서로 진군시키려 했던 적이 있다. 『진서』(권109) 載記(9)에는 이를 기록하여

仁이 昭에게 권하여 擧兵하여 虢을 폐하게 하였다. 虢이 昭를 죽이고 사자를 보내 仁의 허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險瀆에서 仁을 만났다. 仁이 일이 발각되었음을 알고 虢의 사자를 죽이고 동쪽으로 平郭에 돌아갔다.

라고 했다. 『資治通鑑』(권95)에서는 이 때의 일을 약간 다르게 전하는데

閏월에 仁이 擧兵하여 서쪽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仁과 昭의 모의를 虢에게 고하였다. 虢이 아직 믿지 못해서 사자를 보내 조사하게 하였다. 仁의 군대가 黃水에 이른 뒤에 일이 드러난 것을 알고 사자를 죽이고는 平郭에 돌아와 지켰다.

라고 했다. 이상의 두 기사는 모두 평곽에서 서쪽으로 간 모용인의 군사가 그 행군 도중에서 모용황이 파견한 사자와 만난 일을 말하는데, 載記는 그 지역을 험독이라고 하고 『通鑑』은 黃水라고 했다. 胡三省이 『통감』을 주석 하면서 황수는 潢水에 다름 아니라고 하고 지금의 大遼河를 황수라고 했다.³⁰⁾ 그 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險瀆이란 글자의 뜻을 생각하면 황수의 협합에 의거한 이름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생각건

29) 『穀梁傳』(권9) 僖公 28년조를 볼 것. [역자주] 원문에서 주석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편의상 절의 마지막에 달아두었다.

30) 『자치통감』(권95) 注에서 호삼성은 “黃水는 곧 潢水이며 棘城의 동북쪽 唐 營州 400리에 距한다. 載記에 따르면 黃水는 마땅히 漢 遼東郡 險瀆縣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 이것은 遼河의 어귀에서 어지럽게 흐르는 요서의 물길을 가리킨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전한지리도』에서는 이 현을 바다에 근접한 지방에 두었지만 이래서는 너무 동남쪽에 편중되고 옛적과 지금의 지형 변천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된다.

10) 居就縣(지금의 요양 동남쪽)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居就. 室僞山은 室僞水가 나오는 곳이다. 북쪽으로 襄平에 이르러 梁으로 들어간다.

라고 했다. 室僞水는 室僞山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서 양평에 이르러 梁(태자하)으로 들어간다고 하므로 이 河는 요양의 남쪽에서 발원해서 태자하로 들어가는 지류임을 알 수 있다. 陳澧는³¹⁾ 요양 북쪽의 沙河를 이 水로 추정했지만 사하는 혼하와 만나 태자하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의 湯河가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室僞水일 것이다. 탕하는 요양 동남쪽인 분수령에서 발원해서 太安平 북쪽에서 태자하와 흐름이 합쳐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위산이란 분수령(摩天嶺)을 말하며, 거취현은 요양 동남쪽 탕하에 접하는 부근에 있을 것이다.³²⁾

11) 高顯縣(지금의 봉천 동북)

후한 安帝 즉위 원년(서기 107) 이 현은 후성 및 요양의 두 현과 함께 현도군에 들어갔다. 후성은 지금의 봉천 지방에 있으므로 그것과 함께 합쳐진

31) 『한서』 지리지 水道記를 볼 것.

32) 거취가 양평(요양) 부근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모용황이 함화 9년 요동을 토벌할 때 載記에 따르면 “誡이 몸소 遼東을 정벌하여 襄平에서 이겼다. 仁이 임명한 居就令 劉程이 항복하고, 新昌 사람 張衡이 縣의 宰를 잡아 항복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추정할 수 있다.

이 현은 대체로 혼하 유역에 있고 盛京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2) 安市縣(지금의 개평 동북)

지금의 개평현 동북쪽³³⁾ 湯池堡에 있다. 『수경주』(권14)에 인용된 「十三州志」에서

大遼水는 塞外로부터 나와 서남쪽으로 安市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했다. 대요수는 지금의 요하이므로 安市는 요하 어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경』의 기록은 이 기사에 비해 더욱 자세하다.

大遼水는 塞外에서 나와 白平山을 둘러 동남쪽으로 塞에 들어가고 遼東襄平縣 서쪽을 지난다. … 또 동남쪽으로 房縣 서쪽을 지난다. … 또 동쪽으로 安市縣 서쪽을 지나고 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이 글에서 房縣 서쪽을 지난다고 한 것은 房縣 동쪽을 지난다는 잘못된 것이다. 「十三州志」에 안시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 것이 여기서는 안시현의 경내를 지나 거둬 서남쪽으로 가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안시는 강 어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청일통지』(권39)는 당나라 貞觀 19년 太宗이 요동을 토벌할 때 함락시키지 못한 안시성이 전, 후한 및晉初에 설치한 현과 동일한 것임을 기록한다.

13) 武次縣(지금의 봉황성)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武次는 東部都尉의 치소이다. 莽이 桓次라고 불렀다.”고 했다. 요동군에는 도위의 치소가 세 곳이 있다. 서부는 무려현에 중부는 후성현에 동부는 이 현에 설치되었다. 서, 중, 동의 이름은

33) 『대청일통지』(권39) 奉天府 古蹟 항목 참조.

각기 그 자리에 따라 정해진 것이 분명하다. 『사기』(권115) 조선전에 따르면 漢武帝 때 朝鮮은 군사를 보내 동부도위인 涉河를 죽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 땅이 요동 동쪽 변방이어서 조선의 침입을 맞은 지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讀史方輿紀要』(권37)에서는 이 성이 遼東都司(요양주)의 동북쪽에 있다고 했지만 그 위치를 확실하게 가리키지 않았다. 동부도위의 치소라고 한 뜻에서 보면 오히려 봉황성 부근을 이 현의 옛 치소라고 하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14) 平郭縣(지금의 개평현)

지금의 개평현 부근에 있다.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平郭. 鐵官과 鹽官이 있다”고 했다. 요동군에 鹽官이 설치된 것을 생각하면 그 현이 바다에 근접한 지방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쯤나라 咸康 2년(서기 336) 모용황이 요서로부터 와서 이 현을 습격해 깨뜨린 적이 있다. 『자치통감』(권95)에 이를 기록하여,

慕容皝이 장차 慕容仁을 토벌하려고 하니 司馬 高詡가 말하였다. “仁은 임금과 친척을 배반하고 버렸으니 백성과 神이 함께 노하여, 이전에는 바다가 일찍이 얼지 않았는데 仁이 반란을 일으킨 이래로 매년 언 것이 3년입니다. 또한 仁이 오로지 육로만을 방비하고 있으니 하늘이 어찌면 우리로 하여금 바다의 얼음을 타고 이를 습격하게 하고자 한 것일 것입니다.” 皝이 그를 따랐다. 많은 신료들이 모두 얼음을 건너는 것은 위험하니 육로를 따라가는만 못하다고 했다. 皝이 말했다. “내 계책은 이미 결정되었다. 감히 막는 자는 배리라.” 壬午일에 皝이 그 동생인 軍師將軍 評 등을 이끌고 昌黎 동쪽으로부터 얼음을 밟고 나아가니 무릇 300여리였다. 歷林口에 이르러 輜重을 버리고 군사를 가볍게 하여 平郭으로 나아가 성에서 7리쯤 떨어졌다.

라고 했다. 창려는 지금의 大凌河 우안, 大凌河店 부근에 있는 성체이다. 모용황이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바다의 얼음을 해방을 밟고 간 것이 300여리라

고 하므로 아마도 개평현 남쪽에서 상륙한 것으로 생각된다. 『賈耽道里記』³⁴⁾에 따르면 建安城은 한나라 평광현으로 그 지역은 安東都護府(요양) 서쪽 300리에 있다고 한다. 이 거리와 방향은 또한 지금의 개평현 부근에 있어야 함을 적절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15) 西安平縣(지금의 安東縣 九連城)

지금의 九連城 부근에 있다.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西安平은 莽이 北安平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가담도리기』에 따르면 “안동도호부(요양)에서 남쪽으로 압록강 북쪽인 泊灼城에 이르기까지 700리이니 옛 안평현이다”라고 했다. 이 泊灼城은 대체로 지금의 구연성으로 안평현이라고 한 것은 西安平의 西字를 생각한 것이리라. 삼국시대 吳나라의 손권이 그 사자를 고구려왕 궁에게 보낸 적이 있었다. 吳志(권2)에³⁵⁾ 인용된 吳書에서 이를 기록해서

사자 謝宏과 中書 陳恂을 보내 宮에게 벼슬을 주어 單于로 삼고 衣物과 珍寶을 더하여 내려주었다. 恂 등이 安平口에 도착하였다. 이보다 앞서 校尉 陳奉이 前에 宮을 만났는데 宮이 魏나라 幽州刺史 諷의 명령을 받고 吳나라 사자를 自效하려 했다. 奉이 이를 듣고 到還하였다. 宮이 主簿 笮咨과 帶固 등을 보내 安平을 나와 宏과 서로 만나게 하였다. 宏이 곧 30여인을 묶어 인질로 삼았다.

라고 했다. 고구려는 당시 압록강 상류인 丸都(輯安縣 동북쪽에) 도읍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 오나라의 사자가 安平口에 이른 것을 기록하고 있다. 안평구란 아마도 압록강의 하구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곳일 것이므로 이와 같이 불렀을 것이다. 오나라의 사자는 우선 입구에 이르러 다시금 사자를 환도에 보낸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서 말하는 안평구와 賈耽이 가리키는 安平은 완

34) 『당서』(권43) 지리 하 참조.

35) [역자주] 원문에는 吳志(권3)이라 하였지만 해당 내용은 권2에 기재되어 있다.

전히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서』(권28) 지리지 현도군 조 西蓋馬縣의 주석에 “馬耨水는 서북쪽으로 鹽難水에 들어가고, 서남쪽으로 西安平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2개의 군을 지나는데 길이가 2100리다”라고 했다. 馬耨水란 압록강을 말한다. 즉 서안평이 이 강의 어귀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겠다. 『唐書』(권220) 高麗傳에서 안평을 안시로 쓴 것은 생각하건데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 베낀 것이다.

16) 文縣(지금의 개평 서쪽 熊嶽城)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 조에 “文은 莽이 受亭이라 불렀다”고 했다. 『후한서』(권23) 군국지에는 汶이라고 썼다. 쫓나라 함화 8년(서기 333) 모용황의 偏師가 모용인과 汶城 북쪽에서 싸워 패배한 적이 있었다. 호삼성이 같은 항목에 주석을 달아 “汶은 한나라의 옛 현으로 요동군에 속하며 『전한서』에서는 文이라고 썼다”고 했다. 이 해석은 전한의 文縣도 쫓나라의 汶城도 같은 지역이라고 한 것으로 그 위치는 지금의 개평현 서쪽에 있다고 하겠다.³⁶⁾ 『독사방여기요』(권37) 역시 동일하므로 이 설은 따를만하다. 『진서』(권14) 지리지에 따르면 汶은 양평현의 다음, 거취현의 앞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양평 부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리지의 기재 순서를 절대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17) 番汗縣

지금의 압록강 하류에 있다.³⁷⁾ 『한서』(권28) 지리지 요동군³⁸⁾ 조에 “番汗. 沛水가 塞外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沛水는 압록강의 옛 이름 중 하나이다.³⁹⁾

36) 『자치통감』(권95) 참조.

37) [역자주 : 白鳥庫吉 外, 1913, 『滿洲歷史地理』上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0~31쪽을 볼 것.

38) [역자주] 원문은 ‘遼東郡’으로 되어 있으나, ‘遼東郡’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바로잡는다.

39) [역자주 : 白鳥庫吉 外, 1913, 『滿洲歷史地理』上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0~31쪽을 볼 것.

18) 沓氏縣(지금의 金州)

『삼국지』 위지(권4) 경초 3년조에

6월에 요동 東沓縣의 관리와 백성이 바다를 건너가 齊郡의 경계에서 살
았으므로 縱城을 新沓縣으로 삼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라고 했다. 이 글에 보이는 東沓縣이란 전·후한 내내 존속된 요동군의 沓
氏縣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東沓의 관리와 백성이 바다를 건너 齊郡⁴⁰⁾의
경계로 이주했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답씨현은 산둥 반도로 용이하게 건너
갈 수 있는 지방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吳志(권12)에 따르면 손권이 공
손언을 양평에서 토벌하려고 할 때 陸瑁가 간언하여 말하기를,

沓渚는 淵과 떨어져 있어 길이 멀어서 지금 그 shore에 도착하면 군사를 셋
으로 나누어 강한 군사는 나아가 취하게 하고, 그 다음은 배를 지키게 하고,
또 그 다음은 군량을 운반하게 해야 합니다. 가는 사람이 비록 많아도 다 쓰
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했다. 沓渚란 답씨현이 바다에 접한 지역이고, 예로부터 바닷길의 요
충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공손씨는 지금의 요양에 자리잡았다. 이
글에서 沓渚를 길이 멀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이 현이 요하 어귀 부근에 있
지 않았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 『독사방여기요』(권37)은 지금의 金州 동남쪽
바다에 접한 지역을 이 현으로 추정하였다.

투고일 : 2012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8일

40) 山東省 臨淄縣.

참고문헌

- 스테판 다나카 지음,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 고바야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4, 『滿鐵-일본제국의 싱크탱크』, 도서출판 산처럼
- 박장배, 2009, 「만철 조사부의 확장과 조사 내용의 변화」 『중국근현대사연구』43.
- 사쿠라자와 아이, 2009, 「이나바 이와키치의 ‘滿鮮不可分論’」 『일제시기 만주사·조선사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정상우, 2010, 「稻葉岩吉의 ‘滿鮮史’ 체계와 ‘朝鮮’의 재구성」 『역사교육』116.
- 이정빈, 2012, 「식민주의 사학의 한국고대사 연구에 대한 최근의 비판적 검토」 『역사와 현실』83.